

코로나가 초래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은?

이슬비(한성대 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는 무엇보다 예방과 방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물건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이 마스크다. 바이러스의 체내 출입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19 발현 후부터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는 평균적으로 3일 정도 사용한다. 마스크를 아껴 쓰기 위해 매일 갈아 쓰지 않는다고 쳐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은 사용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마스크 및 방역 도구 사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다. 1950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만t 수준의 생산을 하던 플라스틱은 2018년에는 3억5900만t으로 180배가량 증가했으니 그 양 또한 짐작 가능하다. 이렇게 생산되어 소비된 플라스틱 중 상당량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 등을 오염시켰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약 59%가 자연에 무방비하게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480만~1270만t이 강과 호수,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는 5월부터 마스크와 소독용 알코올 용기가 해안가 등지에서 나뒹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단체 측은 “프랑스에서 20억 개 이상의 일회용 마스크가 주문된 것을 고려하면 곧 지중해에 마스크가 해파리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한 달에 최대 600만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많이 버려진 마스크의 쓰레기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플라스틱은 매립하여 처리하게 되면 분해해서 처리하는 데에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7월 27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플라스틱의 약 75%가 매립지를 가득 채우고 바다에 떠다니며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런 쓰레기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이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플라스틱은 물속에 소용돌이치면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된다. 많은 어류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소비하고 실제 이를 먹이로 혼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적어도 600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오염으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스크 줄에 목이 감긴 채로 발견된 새들의 사진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토양과 해양의 전체적인 오염으로 인해 지구는 위

기를 맞고 있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돼 지구 내 생물다양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어 경제, 사회, 보건, 안전 등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인간이 비롯한 것인 만큼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도 우리 스스로가 찾고 실천해 가야 한다.

이러한 명목으로 UN은 2015년 지구촌 구성원이 달성해야 할 목표 17가지를 담아 지속 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이 중 14번, 15번 목표는 각각 '해양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 보존'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질이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 사회는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나무에서 섬유를 추출해 만든 자연소재 플라스틱이다. 기존 플라스틱보다는 덜 단단하지만 잘 분해되는 장점이 있다. 기존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플라스틱에서 재활용할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옥스퍼드대학교에서는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로 일회용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용기를 사용한 후 겉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줄은 끊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상 메시지를 통해 "팬데믹과 싸우는 만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해양을 강조했다. 방역을 위해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면,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인류가 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일 것이다.